

수식어의 의미적 영향권에 관한 연구(I) *

이 영 현
(조선대학교)

Young-Hern Lee. 1996. **Semantic Scope of the Modifiers in Korean.** *Linguistics vol. 3.* Traditionally linguistic concern about modifiers has been limited to the subcategorization of adjectives and adverbs. However, complex nouns sometimes can be construed as modifiers. According to DeBruin and Scha(1988), "John" in "John's father" can be analyzed as the external argument of "father," which means that "father" works as a modifier of "John." Thus semantic functions of modifiers depend on the argument structures of the modified expressions.

On the other hand, complex nouns can be modified by other modifiers such as adjectives or adverb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argument structures of complex nouns into internal arguments and the external arguments in order to describe the scope of their modifiers. With the introduction of argument structures, we can provide a device to describe the scope difference of complex nouns and adjectives. The adjective "white" in "a white silver ring" can modify the first noun "silver" not the second noun "ring." However, the adjective "beautiful" in "a beautiful parish church" can not modify the first noun "parish" but only the second noun "church." This means that the different scope of adjectives depends on the argument structure of the modified expression.

The ungrammatical sentence "The big ant is a big animal" can be described by the different argument structure. The first adjective "big" can have the internal argument "ant", but the second adjective "big" cannot have the internal argument "animal." Instead, the second "big" can take the noun "animal" as its external argument

because it is located at the external argument position.
This problem will be described more precisely in
forthcoming research.

0.

형용사는 물론이고 복합명사 가운데 선행명사는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수식어에 관한 연구는 의미적 특성에 따른 하위 범주 설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Keenan and Faltz(1985)에서는 형용사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제한 형용사, 교 형용사, 추정 형용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어에 있어서도 최현배(1971), 이희승(1974), 김민주(1975), 정인승(1974) 등의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하위범주 설정에 쫓이고 있다. 이렇듯 종래의 연구는 수식어으로써 형용사 자체의 독립적 특성을 기술하였을 뿐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내적 구조는 단순한 함수적용(functional application)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수식어를 단순함수 표현으로 간주하는 데는 문제점이 노정 된다. Robert J. P. Ingria and L. M. George(1993)에서는 형용사는 물론이고 명사 가운데는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을 취하는 것들과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을 취하는 것들로 대별하고 있다. 즉 형용사 가운데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는 외부논항을 취하지만,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취하는 경우로 대별함으로써 통사적 특성에 따른 논항구조를 밝히고 있다.

본 고에서는 범주문법의 모형에 따라 수식 기능을 갖는 형용사와 명사 가운데 외부논항 구조를 갖는 경우와 내부논항 구조를 갖는 경우로 대별하고, 수식어의 수식영역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 논항구조에 따른 피수식어의 불연속 수식관계를 밝힘으로써 선행적 의미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조선 대학교 교수 해외 파견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수식어로서 형용사는 의미적으로 피수식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이지만, 통사적으로는 서술어(predicate)로 쓰이는 경우와 수식어(modifier)로 쓰이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식어가 의미적으로 함수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식어의 의미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식어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의미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Ingrai and George(1993)에 의하면, 형용사의 논항¹을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으로 구별하고 있다.

- (1) a. Anna is happy.
b. We all regard her as quite competent
- (2) a. How afraid of snakes is he?
b. How certain that John is guilty are you?

명사구 Anna나 her는 각각 happy와 competent의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의미상으로 이들 명사는 형용사의 논항이 되지만 통사적으로는 이들 형용사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반해서 (2)의 snakes나 that John is guilty는 각각 afraid나 certain의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이 된다는 것이다.²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분류기준은 이들 형용사와 논항이 통사적으로 형용사의 최대 투사구조 내에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1)의 Anna나 her는 형용사의 최대 투사구조 밖에 있는데 반해서 (2)의 snake나 that John is guilty는 형용사의 최대투사 내에 존재한다는 데서 이를 내부논항 정의하고 있다.

국어의 형용사에 있어서도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구별을 할 수 있다.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선행하지만,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수식어를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 (3) a. 예쁜 꽃이 피었다.
b. 꽃이 예쁘다.

(3a)의 예쁜은 피수식어인 꽃을 선행하며, 꽃은 형용사의 직접 수식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논항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b)의 예쁘다는 꽃을 논항으로 취하지만, 꽃은 예쁘다의 직접 수식영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구별은 두 개의 논항을 갖는 형용사에서 더욱 명백히 볼 수 있다. 예쁜과 같은 형용사는 이른바 1항 논항 형용사로서 오직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데 반해서 (4)의 형용사들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부류이다.

- (4) a. 밥과 같은 어둠이 왔다.
b. * 같은 어둠이 왔다.

- (5) a. 이것과 비슷한 책은 없다.
b. * 비슷한 책은 없다.

(4a)나 (5a)가 문법적인 데 반해서 (4b)나 (5b)가 비문법적인 것은 같은과 비슷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비교할 요소와 비교될 요소가 존재할 경우에만 문법적 표현이 된다. 따라서 비교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문법적 표현이 된다. 즉 같다와 비슷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6) a. 같다 (x, y)
b. 비슷하다 (x, y)

같다, 비슷하다는 두 개의 논항을 갖지만, 같은의 직접수식 범위 속에 들어 있는 어둠은 내부논항이 되지만, 형용사에 선행하는 밥은 외분 논항이 된다. 말하자면 어둠은 형용사 같은의 수식범위 속에 있지만, 밥은 같은의 수식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같다, 비슷하다의 내부논항은 y 가 되며 외부논항은 x 가 된다.

형용사는 물론이고 명사도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을 갖는 경우가 있다. DeBruin and Scha(1988)에 의하면 관계명사(relational nouns)는 외부논항을 갖는다는 것이다.

- (7) a. Fredick's speed is 50 knots.
b. Fredick has a speed of 50 knots.

- (8) a. Bill is John's father
b. equal "Bill" (father of "John")

전통적으로 통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the father나 John's father에서 the나 John's는 father를 수식하는 관계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의미상으로 함수-논항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7a)의 Fredick's speed 역시 Fredick이 speed를 수식하는 관계이며 Fredick이 speed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7a)의 의미는 (7b)와 같이 쓸 수 있으며, speed와 Fredick 사이에는 Fredick이 speed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speed가 Fredirc를 논항으로 취하여 50 knots를 값으로 사상(mapping)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사적으로도 Fredick은 speed의 최대투사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Fredick은 speed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John's father에서 John's는 father의 논항이 된다는 것은 (8a)의 의미를 (8b)와 같은 논리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데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내부논항은 명사구 최대 투사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대 투사밖에 나타날 수도 있다.

- (9) a. A new book about syntax appeared last year.
b. A new book appeared last year about syntax.

(9a)에서 보는 것처럼 about syntax는 book에 대한 내부논항으로써 명사구 "a new book about syntax"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9b)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구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다.

국어에 있어서도 명사 역시 외부논항을 갖는 경우와 내부논항을 갖는 경우가 있다.

- (10) a. 대 바꾸니
b. 당 비서

(10)의 두 명사구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 구성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다. 통사적으로 (10)의 선행명사들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지만 이들 표현이 지시하는 구성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다. 즉 (10a)의 대는 바꾸니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지만, (10b)의 당은 비서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수식관계로 본다면 대는 바꾸니를 수식하기 때문에 대는 바꾸니를 내부논항으로 갖는다. 그런데 반해서 (10b)의 당 비서에서는 비서가 당원의 요소가 되므로 당은 비서를 외부논항으로 갖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수식구조는 외부논항과 내부논항 구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수식구조에서 이러한 논항에 대한 특성이 간과된다면 수식구조 기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 된다.

첫째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의 경우 수식어의 수식영역에 따른 비문법성이 제기된다.

- (11) a. 예쁜 꽃
- b. 다른 책

- (12) a. 하얀 은 반지
- b. 파란 대 바구니

(11)의 예쁜이나 다른이 각각 후행하는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에서도 하얀 이나 파란은 각각 후행하는 은 이나 대를 수식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하얀이 은을 수식하지 아니하고 반지를 수식한다면 (13)과 같은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 (13) a. * 은 하얀 반지
- b. * 대 파란 바구니

(13)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명사 사이에 수식어가 삽입되면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되는 것은 형용사의 수식영역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는 파란 반지, 노랑 반지 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이 비문법적인 것은 하얀의 수식영역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즉 하얀 이 파란이 선행명사 은이나 대를 수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행명사 반지나 바구니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식어는 일차적으로 수식어 다음에 오는 요소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수식어가 복합명사 가운데 선행명사를 수식하지 못하고,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 (14) a. 고급 당 간부
- b. 현명한 조선대 학생

(14)의 고급이나 현명한은 각각 선행명사 당과 조선대를 수식하지 못한다. 만일 이들 수식어가 선행명사를 수식한다면 *고급 당은 물론 *현명한 조선대와 같은 비문법 표현이 유도된다. 즉 고급 당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조선대라는 명시적 지시 대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선 대학교가 현명할 수는 없다.

- (15) a. 당 고급 간부
- b. 조선대 현명한 학생

그러나 (14)를 각각 (15)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수식어 고급

이나 **현명한**이 복합명사 가운데 **후행명사**를 수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Jespersen(1969)에 의하면 피수식어가 복합명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행 명사만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6) a. a beautiful parish church.
 b. a green garden table
 c. his big schoolboy handwriting

(16)의 beautiful이나 green, 그리고 big은 각각 church와 table, 그리고 handwriting만을 수식한다는 것이다. 즉 (16a)의 의미는 교구가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beautiful은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명사를 수식한다. 또한 (16b)에 있어서도 정원이 파랗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원용 식탁이 파랗다는 의미이며, (16c)에 있어서도 국민학생의 몸집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씨체가 크다는 의미로써 국민학교 학생식의 크게 쓴 글씨를 의미한다. 이렇듯 수식어의 수식영역은 수식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수식어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식어가 동일한 내부논항을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사구조에 따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 (17) a. 큰 개미는 작은 동물이다.
 b. 작은 코끼리는 큰 동물이다.
- (18) a. * 작은 개미는 큰 동물이다.
 b. * 큰 코끼리는 작은 동물이다.

(17)은 문법적인데 반해서 (18)의 두 표현은 비문법적이다. 수식어 크거나 작다 모두 개미나 코끼리를 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도 수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 비문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식어의 피수식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수식어의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을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식어는 물론이고 피수식어에 따른 수식의 영역과 피수식어의 특성에 따른 의미적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식어가 갖는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수식관계와 논항관계에 따른 특성이 기술되어야 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문법모형이 필요하다. 특히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관계 기술에 있어서는 함수-논항구

조를 갖는 문법모형이 요구되며, 이러한 모형 가운데 하나가 λ -범주문법이다.

II.

λ -범주 문법은 Creswell (1973)이 0-순위 논리 (0-order logic) 체계에 연산자 λ 와 개체변항 x, y 등을 부가한 문법이다. Montague의 범주문법은 표현들 간의 관계를 함수적용과 함수합성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λ -범주문법에서는 함수적용규칙만을 설정하고 있다.

λ -범주문법의 통사부는 범주규칙과 통사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사범주에는 0과 1등이 있으며, 범주 0은 문장을 나타내는 통사범주이고, 1은 이름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임의의 범주 $\langle \tau, \sigma_1 \dots \sigma_n \rangle$ 가 주어졌다면 $\langle \tau, \sigma_1 \dots \sigma_n \rangle$ 는 함수자(functor)범주로서 논항의 범주 $\langle \sigma_1 \dots \sigma_n \rangle$ 가 주어지면 두 표현의 결과적 범주는 $\langle \tau \rangle$ 범주가 유도된다. 예를 들면 John이나 철수와 같은 이름은 범주 $\langle 1 \rangle$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나 걷다와 같은 보통명사나 자동사는 $\langle 0, 1 \rangle$ 의 범주를 갖는다. 즉 범주 $\langle 0, 1 \rangle$ 은 논항 $\langle 1 \rangle$ 을 취하여 문장 범주 $\langle 0 \rangle$ 을 갖는다. 또한 love나 사랑하다와 같은 타동사는 $\langle 0, 1, 1 \rangle$ 의 범주로 나타낸다. 말하자면 타동사는 목적어인 이름의 범주 $\langle 1 \rangle$ 을 일차적으로 취하면 $\langle 0, 1 \rangle$ 의 자동사와 동일한 범주가 유된다. 자동사에 다시 이름을 논항으로 취하게 되면 $\langle 0 \rangle$ 범주가 유도된다.

이러한 범주들이 주어졌을 때, 이들 범주로부터 파생표현을 기술하기 위한 형성규칙(formation rule)은 다음과 같다.

- (19) a. If $\delta \in \langle \tau, \sigma_1 \dots \sigma_n \rangle$ and $a_1, \dots, a_n \in \langle \sigma_1, \dots, \sigma_n \rangle$ then $\langle \delta, \sigma_1, \dots, \sigma_n \rangle \in \tau$
 b. If $\delta \in \mathcal{D}_n$ and $a_1, \dots, a_n \in S$ then $\langle \delta, a_1, \dots, a_n \rangle \in S$

(19)에서 보는 것처럼 $\langle \tau, \sigma_1 \dots \sigma_n \rangle$ 범주의 표현 δ 와 $\langle \sigma_1 \dots \sigma_n \rangle$ 범주의 표현 a_1, \dots, a_n 이 주어졌을 때 두 표현 δ 와 a_1, \dots, a_n 이 결합되면 $\langle \tau \rangle$ 범주의 표현이 유도된다. 뿐만 아니라 두 표현이 함수자 범주일 때 이를 함수적용 규칙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변항 (x, y)을 도입한다. 이들 변항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추출 연산자 (abstraction operator)이다. 예컨대 a 가 τ 범주이고, x 는 σ 범주의 변항이라면 $\langle \lambda, x, a \rangle$ 는 $\langle \tau, \sigma \rangle$ 범주의 표현이 된다.

의미부 역시 통사부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형식

의미론에서는 해석을 하기 위한 모형이 주어져야 한다. 모형 이론적 의미론에 입각한 해석절차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석은 주어진 모형 (model)에서 이루어지며, 모형은 영역 (domain)과 치할당 함수 또는 외연할당 함수 (denotation assignment function)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langle \tau, \sigma_1, \dots, \sigma_n \rangle$ 가 함수자 범주라면 이 범주의 영역은 $D\sigma_1 \times \dots \times D\sigma_n$ 에서 $D\tau$ 로 사상하는 함수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영역이 주어지고, 할당함수가 주어지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즉 표현에 대한 의미는 곧 치할당이 된다. 치할당 함수 V 는 임의의 표현 a 가 σ 범주의 표현이라면 그 의미는 $V(a) \in D\sigma$ 가 된다. 뿐만 아니라 변항에 대한 값도 결정되어야 하며, 변항 x 가 σ 범주의 표현이라면 $v(x) \in D\sigma$ 가 된다. 이들의 값은 다음과 같다.

- (20) a. a 가 정항표현이라면 $Vv(a) = V(a)$
 b. a 가 변항이라면 $Vv(a) = v(a)$
 c. a 가 $\langle \delta, a_1, \dots, a_n \rangle$ 이라면 $Vv(a) = Vv(\delta)(Vv(a_1), \dots, Vv(a_n))$
 혹은 $Vv(a) = \omega\delta(Vv(a_1), \dots, Vv(a_n))$.
 d. a 가 $\langle \lambda, x, \beta \rangle$ 이고 x 는 σ 범주의 변항이며, β 는 τ 범주의 표현이라면 $Vv(a)$ 는 $D\sigma$ 에서 $D\tau$ 로 사상하는 함수 w 이다.
 즉 $\omega(a) = V(v, a/x) = a$

이 모형에서 V 는 함수이다. 해석이 하는 일은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며 이는 통사부에서 보았던 함수자 F 가 표현에 범주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컨대 $V\langle \text{loves, John, Mary} \rangle = V(\text{love})(V(\text{John}), V(\text{Mary}))$ 가 된다. 이 경우 함수 V 는 그 값으로 $\text{Love}(\text{john, mary})$ 을 유도한다. 즉 $V(\text{love})$ 가 함수표현이 되며 $V(\text{John})$ 과 $V(\text{Mary})$ 는 논항이 된다. 따라서 $L(j, m)$ 와 같은 의미 표시를 갖게 된다.

III.

통사적 범주와는 관계없이 수식기능을 갖는 요소 가운데는 외부 논항을 갖는 경우와 내부논항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에는 명사가 내부논항이 되지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는 외부논항이 된다. 그리고 복합명사구에 있어서는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내부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와 후행명사가 선행명사를 외부논항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

음을 보았다. 우선 복합명사 가운데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에 대한 명시적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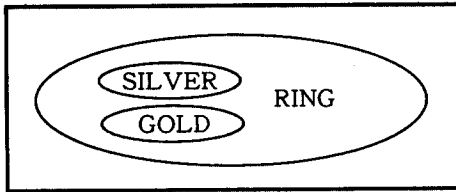
- (21) a. 은 반지
b. 대 바구니
- (22) a. 당 간부
b. 조선 대학교 학생

통사적으로는 (21)과 (22)의 명사구들은 모두 복합명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내적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23) 은 반지 → 그 반지는 은이다.
대 바구니 → 그 바구니는 대로 만들어졌다.
- (24) 당 간부 → * 간부는 당(으로) (구성되었)이다.
조선 대학교 학생 → * 학생은 조선대학교 이다.

(23)의 화살표 왼쪽 표현을 각각 화살표 오른쪽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은 반지나 대 바구니에서 은이나 대는 반지나 바구니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즉 (23)에서 은은 반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이를 Venn diagram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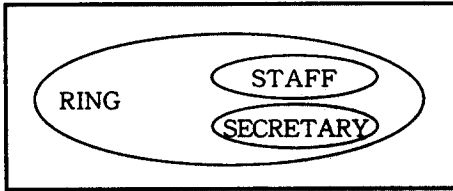


(25)에서 보는 것처럼 반지가 갖는 속성들 가운데는 은의 속성뿐만 아니라 금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반지의 집합 속에는 은이나 금과 같은 집합들이 들어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4)의 당 간부와 같은 복합명사에서는 은 반지와는 상이한 구성구조 관계이다. 복합명사 은 반지에서는 은은 반지의 구성요소이지만, 복합명사 당 간부에서는 당이 간부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즉 선행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 사이에는 후행하는

요소가 선행하는 요소의 원소가 된다. 따라서 (26)과 같은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선행명사 **당**은 후행명사 **간부**나 **비서**를 수식하는 위치에 놓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간부**나 **비서**가 **당**의 구성요소이다.

통사적으로 이들 복합명사의 수식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7) a. 은 반지 = [... [N 은] ... [N 반지] ...]

b. 당 간부 = [... [N 당] ... [N 간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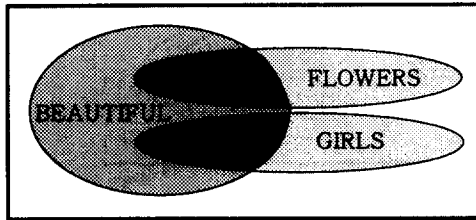
즉 **은 반지**에서 머리어(head)는 **반지**이며, **당 간부**에서 머리어는 **간부**이다. 비록 두 명사의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머리어 이외의 요소들은 머리어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명사 **은**과 **당**은 각각 후행명사 **반지**와 **간부**를 수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수식어의 외연은 피수식어의 외연보다 작다.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의미적 관계는 외연과 내포의 대소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은**은 **은**이라는 하나의 속성만을 갖는데 반해서 **반지**는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색깔, 용도 등의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의 속성은 **반지**의 속성보다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은**의 외연은 **반지**의 외연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는 외연이 작은 수식어가 외연이 큰 피수식어의 외연을 제한하는 것이 수식의 일반적 특성이다. 이러한 수식관계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예쁜 꽃**에서 **예쁜 것**의 속성은 **예쁘다**는 하나의 속성만을 갖는데 반해서 **꽃**의 속성에는 **잎**, **향기**, **암술** 등의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의 외연만을 갖는 **예쁜**이 내포하는 것은 **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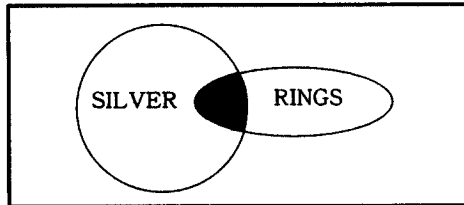
내포하는 것보다는 크다. 바꾸어 말하면 예쁜 것들에는 꽃, 소녀, 인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쁘고 꽃 사이의 내포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8)



이러한 의연과 내포 관계에 의하여 복합명사의 수식관계를 기술할 때 은 반지는 예쁜 꽃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29)



(29)에서 보는 것처럼 은의 내포가 반지의 내포보다 크기 때문에 은은 반지를 수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반지의 내포가 은의 내포보다 크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도 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 (30) a. *반지 은
- b. *주전자 은

(30)이 비문법적인 것은 주전자의 내포가 은의 내포보다 적기 때문에 주전자가 은을 수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수식어

의 자리에 오는 명사 가운데는 의미적 구성관계에 있어서는 후행 명사가 선행명사의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내포가 큰 요소가 내포가 작은 요소를 제한하는 경우, 내포가 큰 요소는 작은 요소를 논항으로 취하며, 이러한 논항을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7a)의 온 반지에 있어서 온은 반지를 내부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27b)의 당 간부에서도 머리어가 간부이고, 당이 수식어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당이 간부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당과 간부의 외연 사이의 관계는 온과 반지의 외연 사이의 관계와는 다르다. 즉 당은 간부, 비서 등의 외연을 갖는다면, 간부는 간부라는 외연만을 갖는다. 따라서 당 간부에서는 당의 외연이 간부의 외연보다 크다고⁵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간부의 내포가 당의 내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간부가 당을 수식하는 관계라 할 수 있고, 통사적 관계에서 보면 당이 간부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당은 간부의 원소가 되지 못하면서도 통사적으로 수식관계에 있다. 이렇듯 당은 명사구 당 간부의 최대 투사내에 있으면서도 의미상으로는 함수-논항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당은 간부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함수-논항 구조를 갖지 않으면서도 두 표현 사이에 외부 논항 관계에 있다면,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 (31) a. It is a beautiful parish church.
b. It is a beautiful church of the parish.

(31a)에서 보는 것처럼 beautiful의 직접 수식내에 있는 요소는 church라는 점에서 church는 beautiful의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31a)를 (31b)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church가 beautiful의 내부논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경우 parish는 명사구 a beautiful parish church라는 명사구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beautiful의 수식영역에 있으면서도 beautiful의 논항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경우 parish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parish가 church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beautiful과 같지만, (31b)에서 보는 것처럼 parish는 부사적 기능을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church를 수식하는 두 요소 가운데 beautiful과 parish의 기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hurch는 beautiful의 보어(complement)라고 한다면 parish는

church의 부가어(adjunct)⁶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일 때 고급 당 간부에서 있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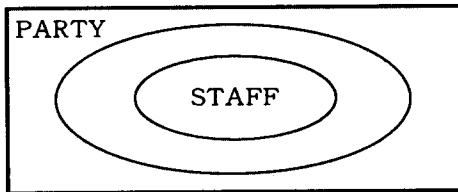
- (32) a. 당 간부가 우리 집에 왔다.
- b. 간부 당원이 우리 집에 왔다.

- (33) a. 철수는 고급 당 간부이다.
- b. 철수는 고급 간부인 당원이다.

(32a)의 의미는 간부가 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왔다는데 초점이 있다. (32a)의 의미와 (32b)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2a)의 의미는 당원이 왔는데 그 당원은 간부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33a)를 (33b)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명사구 고급 당 간부를 고급 간부인 당원과 같은 부사적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즉 (33a)에서 당이 간부를 선행하는 요소로써 수식관계에 있으면서도 (33b)에서 보는 것처럼 당과 간부 사이에는 독립적 관계이거나 아니면 동격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당과 간부 사이에는 수식관계에 있으면서도 합수-논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당은 간부에 대한 부가적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복합명사에 있어서 두 요소간에는 명시적 수식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두 명사 사이에 제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은 반지에서는 은은 반지를 논항으로 택하지만, 당 간부에서는 당이 간부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이 간부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가 아니다.

(34)



따라서 당 간부의 구성관계는 (26)이 아니라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당과 간부 사이에 독립적 관계라는 것은 바로 (34)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의 외연과 간부의 외연이 서로 소(disjoint)관계임을 보여 준다. 이렇듯 당과 간부 사이의 관계는 (11)의 John's father에서 John은 father의 외부논항이 되는 것과 동일한 관계이다.

(35) equal "Bill" (father of "John")

- (36) a. 철수는 당 간부이다.
b. equal "철수" (-의 간부 "당")

(35)에서 보는 것처럼 John's father의 논항구조와 마찬가지로 (36a)의 당 간부의 논항구조를 (36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은 간부에 대한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복합명사 가운데 선행명사와 후행명사 사이에는 외연의 대소관계가 성립하며, 이들 외연의 대소관계는 함수-논항구조를 결정한다. 특히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의 외연을 제한하는 경우 후행명사는 내부논항이 되며,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 선행명사는 외부논항이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IV.

복합명사 가운데 외부논항 구조를 갖는 경우이든 내부논항 구조를 갖는 경우이든 간에 이들 복합명사는 또 다른 수식어의 논항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복합명사는 형용사의 논항이 된다. 이 경우 형용사의 수식영역은 복합명사의 논항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7) a. 하얀 은 반지
b. 파란 대 바꾸니

수식어는 반드시 논항표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함수표현이다. (37a)에서 형용사 하얀은 복합명사 은 반지를 수식하는 함수표현이며, 따라서 은 반지는 하얀의 논항이 된다. 그러나 은 반지가 하얀의 논항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식어 하얀의 수식영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은과 반지 사이에는 은이 반지를 내부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임을 보았다. 이 경우 은 반지는 단순한 두 명사의 복합적 관계⁷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형용사의 수식영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형용사가 복합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피수식어인 복합명사 가운데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후행명사를 수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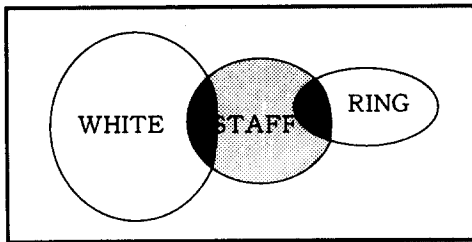
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수식어의 논항은 논항범주에 따라 수식영역이 달라진다. 즉 수식 영역은 피수식어의 논항이 함수표현이라면 피수식어 가운데 함수 표현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식의 특성이다.

- (38) a. 매우 아름다운 꽃
- b. 매우 아름다운
- c. * 매우 꽃

(38)의 아름다운의 논항은 꽃이 되지만, 매우의 논항은 아름다운 꽃이 된다. 이 경우 매우의 논항은 아름다운 꽃 가운데 꽃은 논항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이 논항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피수식어인 아름다운 꽃이 또 다른 수식어 매우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피수식어 가운데 함수표현이 논항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명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두 명사 사이에 함수 논항관계가 성립한다면 함수표현이 되는 요소가 또 다른 수식어의 논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 반지와 같은 복합명사가 하얀과 같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함수표현인 은만이 하얀의 논항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식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9)



즉 은은 반지를 논항으로 취하고 다시 하얀은 은을 논항으로 취한다. 만일 하얀이 반지를 논항으로 취한다면 *은 하얀 반지와 같은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이와 같이 함수표현이 또 다른 함수표현과 결합하는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0) X (Y (a))
 하얀 (은 (반지))

(40)에서 X는 형용사 **하얀**의 범주이고, Y는 선행명사 **은**의 범주이며, 논항 a는 **반지**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X도 함수표현이고 Y도 함수표현이다. 그러면서도 통사적으로 X는 다시 Y(a)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X의 논항은 Y(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합 과정에서는 X나 Y는 모두 함수자 범주이므로 일차적으로 X와 Y사이에는 함수합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하위 논항 a의 범주를 $\langle 0, 1 \rangle$ 이라고 한다면 Y의 범주는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X의 범주는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이라고 할 수 있다.

- (41) a. 하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반지 $\langle 0, 1 \rangle$
 b. 하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은 반지 $\langle 0, 1 \rangle$
 c. 하얀 은 반지 $\langle 0, 1 \rangle$

그러나 (41)의 결합 과정에서는 **하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의 범주나 **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범주가 동일함으로 하얀 이 은은 모두 **반지** $\langle 0, 1 \rangle$ 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즉 (39)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지**는 **하얀**의 논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적용관계에 있어서는 **하얀**이나 **은**이 **반지**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은 하얀 반지**와 같은 비문법적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하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이 **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만을 논항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얀**의 범주는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의 범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2) a. 하얀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반지 $\langle 0, 1 \rangle$
 b. 하얀 은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반지 $\langle 0, 1 \rangle$
 c. 하얀 은 반지 $\langle 0, 1 \rangle$

(42)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의 범주를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로 설정함으로써, 하얀 이 **반지** $\langle 0, 1 \rangle$ 를 논항으로 취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은 하얀 반지**와 같은 비문법 표현을 막을 수 있게된다. 바꾸어 말하면 하얀 이 은을 논항으로 취하여 출력된 표현 **하얀 은**이 다시 **반지**를 논항으로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

과정은 바로 선행적 해석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복합명사 가운데 외부논항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복합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수식의 영역이 달라진다.

- (43) a. 고급 당 간부
- b. 현명한 축구부 간부
- c. 다른 책 도둑놈
- d. a green garden table
- e. his big schoolboy handwriting

당 간부와 같은 복합표현에 있어서 당은 간부의 외부논항임을 보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이 외부논항이라는 사실은 함수표현이 되는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40)의 당 간부에서 당이 선행명사라 할지라도 간부가 함수표현이므로, 형용사 고급은 당을 수식하지 못하고 간부를 수식한다.

앞에서 보았던 하얀 은 반지에서는 하얀은 은을 수식할 수도 있고, 반지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해서 고급 당 간부에서는 형용사 고급은 당을 수식하지 못하고 오직 간부만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식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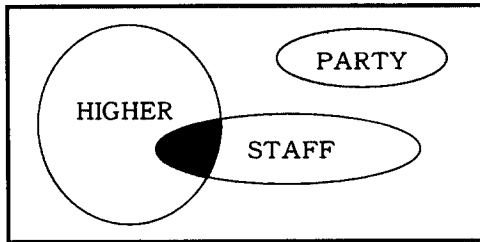


그림 (44)를 (29)와 비교해 볼 때 (29)에서는 은의 외연과 반지의 외연이 교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지는 은의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44)에서는 당의 외연과 간부의 외연은 서로 소(disjoint) 관계임으로 당은 간부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급 당 간부의 수식관계를 범주문법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5) X + y + (a)$$

고급 + 당 + 간부

(45)의 결합관계를 (39)의 결합관계와 비교해 볼 때, (39)에서는 (a)에 해당하는 반지가 온의 논향이지만, (45)에서는 y 는 X^8 와 동일한 범주의 함수표현이 아니라 $y = \{X, Y\}$ 와 같은 상위범주의 함수표현이다. 따라서 (a)는 y 의 논향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통사적으로는 $(X + y + (a))$ 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X 는 (a)을 논향으로 취할 수 있으나, y 는 (a)를 논향으로 취하지 못한다. 예컨대 하위 논향 a 의 범주를 $\langle 0, 1 \rangle$ 이라고 한다면 X 의 범주는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y 의 범주는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이라고 할 수 있다.

$$(46) \text{ 고급 }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당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간부 $\langle 0, 1 \rangle$

이들의 결합관계에서 고급은 간부를 논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고급의 범주와 간부의 범주 사이에 함수-논향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급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이 간부 $\langle 0, 1 \rangle$ 와 결합하여 고급 간부는 $\langle 0, 1 \rangle$ 의 범주표현이 된다. 이 경우에 당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l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이 고급 간부 $\langle 0, 1 \rangle$ 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고급간부가 당의 논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급이 당과 결합하여야 한다. 이렇듯 범주간의 함수-논향 관계에 있어서 당이 고급을 논향으로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7) \text{ 고급 당 간부} = \text{당 고급 간부}$$

그럼에도 고급의 범주보다 당의 범주가 상위범주이기 때문에 고급

이 당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λ 연산자와 변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48) a. 당 고급 간부
 $\langle \lambda, x, \text{당} \langle \lambda, y \text{ 고급} \langle x, y, \text{간부} \rangle \rangle \rangle$
 $\langle \lambda, x, \text{당} \langle x, \text{고급 간부} \rangle \rangle$
 b. 고급 당 간부
 $\langle \lambda, x, \text{고급} \langle \lambda, y \text{ 당} \langle y, x, \text{간부} \rangle \rangle \rangle$
 $\langle \lambda, x, \text{고급} \langle \langle \text{당}, x, \text{간부} \rangle \rangle \rangle$

(48a)에서 보는 것처럼 $\langle x, y, \text{간부} \rangle$ 의 y 자리에 고급이 λ -전환(λ -conversion)되어 $\langle x, \text{고급 간부} \rangle$ 가 유도된다. 다음에는 $\langle x, \text{고급 간부} \rangle$ 의 x 자리에 당이 λ -전환되어 $\langle \text{당}, \text{고급}, \text{간부} \rangle$ 와 같은 표현이 유된다. 그러나 (48b)에서 $\langle y, x, \text{간부} \rangle$ 는 고급의 논항이지만, 통사적으로 당의 논항 표현이므로 $\langle y, x, \text{간부} \rangle$ 의 y 자리에 당이 먼저 λ -전환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langle \lambda, x, \text{고급} \langle \text{당}, x, \text{간부} \rangle \rangle$ 와 같은 표현이 유도된다. 이 경우 $\langle \text{당}, x, \text{간부} \rangle$ 의 x 자리에 고급이 λ -전환되어야 함에도 통사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langle \lambda, x, \text{고급} \langle \langle \text{당}, x, \text{간부} \rangle \rangle \rangle$ 에서 λ 와 변항을 모두 제거한다면 $\langle \text{고급}, \text{당}, \text{간부} \rangle$ 와 같은 표현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langle \lambda, x, \text{고급} \langle \langle \text{당}, x, \text{간부} \rangle \rangle \rangle$ 에서 x 자리에 λ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고급의 논항이 간부임을 말해 주면서도 통사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사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미적 수식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듯 고급 당 간부에 있어서도 고급과 당이 결합하여 고급 당을 유도하고 고급 당은 다시 간부와 결합함으로써, 선형적 결합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식영역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V.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수식표현 가운데는 형용사는 물론이고 명사 역시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형용사가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형용사의 최대투사내에 있는 경우, 명사는 형용사의 내부논항이 되지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는 외부논항관계임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복합명사 가운데, 온 반지와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온의 내부논항이 되지만, 당 간부와 같은 경우에는 당이 간부의 외부논항이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렇듯 외분논항과 내부논항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형용사가 복합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예컨대 파란 대 바구니에서는

파란이 대를 수식하지만, 고급 당 간부에서는 고급이 당을 수식하지 못하고 간부만을 수식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 성질의 형용사라 할지라도 큰 개미는 작은 동물이다와같은 표현은 문법적인데 반해서 작은 개미는 큰 동물이다가 비문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이나 작은 외부논항이 되는 경우와 내부논항이 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논제를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내 용 주

1. Ingria and George (1993)에서는 보어(com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어 대신에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쓴 것은 논항구조라는 관점에서 수식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2. afraid와 같은 형용사는 외부 논항은 물론이고 내부 논항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2항관계를 나타낸다.
3. 영어의 happy와 같은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외부 논항을 갖지만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내부 논항인 보어를 갖는다.
 - 1) a. I met a happy boy.
 - b. John is happy.
 이 경우 형용사 Happy가 외부 논항을 갖든 아니면 내부 논항을 갖든 간에 오직 1항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외연과 내포 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 즉 임의의 요소가 외연이 크면 반대로 내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5. 실제로 당과 간부 사이의 외연이나 내포 관계에 있어서는 대소관계를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서도 수식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이 간부를 수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은 간부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6. Jespersen(1969)에 의하면 adjunct에는 제한적인 것과 비제한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7. 여기서 말하는 복합적 관계란 두 명사의 병치를 말하며, 두 명사 사이에 함수논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 (i) 눈 코 뜰 사이도 없다.
 - (i)의 복합명사 눈 코 사이에는 함수 논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8. 소문자는 논항표시이고 대문자는 함수자표시이다

참 고 문 헌

- Ades, A. E. and M. J. Steedman (1982) On the Order of Words, *Linguistics and Philosophy*, 44(3)
- Bresnan, Joan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 Chomsky Noam (195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Cresswell, M. J. (1973) *Logics and Languages*, Methuen and Co. London.
- Cresswell, M. J. (1985) *Adverbial Modification*, R. Reidel Publishing, Dordrecht.
- De bruin, Jos and R. Scha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Norristown, NJ.
- Gazdar, Gerald, et.,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eim I.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 and Philosophy* 13.
- Ingria, R. and L. M. George (1993) "Adjective, Nominals, and The Status of Arguments" in *Semantics and the Lexicon*, Klauber Academic, Dordrecht.
- Jespersen, Otto (1969)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 Kamp, H. and U.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Klauber Academic, Dordrecht.
- Keenan, E. and L. M. Faltz (1985) *Boolean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 Reidel Publishing, Dordrecht.
- Levin, Beth and Tova R. Rapoport (1988) "Lexical Subordination" in *CLS 21*,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Pustejovsky James (1993) *Semantics and the Lexicon*, Klauber Academic, Dordrecht.
- Stowell, Timothy (1983) "Subject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 William, Edwin(1980)"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1)
- William, Edwin (1983) "Syntactic and Semantic Categor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 Zwicky, Arnold (1985) "How to describe inflections", *Berkely Linguistics Society* 11.
- Zwicky, Arnold (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serial verbs?",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Columbus, Ohio.

김민수 (1975) 『국어 문법론』 일조각, 서울

이영현 (1991) “한국어 제약적관형어의 s-범주문법적 의미표시, 애산학보 11.

이영현 (1993) “한국어의 시간부사와 장소부사의 수식구조와 의미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31.

이희승 (1974) 『새문법』 일조각, 서울

정인승 (1967) 『표준문법』 계몽사, 서울

최현배 (1971) 『우리 말본』 정음사, 서울

광주시 서석동 375

조선 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과

이영현